

# 색다른 심장수술

- 니나 리 아퀴노

왜 연극을 하는가 하는 질문을 받을때마다 내 대답은 언제나 똑같다. 이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연극예술이 세상을 변화 시킬수 있다고 근본적으로 믿기때문이다. 이런 나의 믿음에 대해 어떤이들은 너무 철없는 혹은 케케묵은 사고방식이라 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만 치부하기에 연극은 너무 힘든 장거리 경주이다. 나 혼자만 뛰는것이 아니라 관련된 모든 예술인들도 함께 뛰어야하는 마라톤이다.

그동안 슬한 존재 위협에도 불구하고 연극은 살아남았고 어떻게보면 더 왕성해졌다. 라디오, 텔레비전, 스포츠 게임, 스트리밍 기술.. 이런 와중에도 연극은 살아있다. 연극만이 실제관객이 반드시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참 기적같은 일이다. 무대에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찾아온다. 친구들과 색다른 경험을 해보려고, 혹은 연기를 눈으로 목격하기위해, 혹은 의무감에서... 상관없다. 조명이 반쯤 꺼지고 곧 칠흑 어둠이오면 관객은 하나로 묶인다. 펼쳐질 스토리에 함께 묶인다.

전통적인 무대건 실험적 무대건 관중은 무대에 퍼쳐지는 이야기의 증인이자 능동적 참가자가 된다.

- 상처를 보여주는 이야기
- 치료약을 보여주는 이야기
- 바깥 세상을 잊도록 해주는 이야기
- 바깥세상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
- 복장 터질 이야기
- 가슴이 아른해 지게 해주는 이야기
- 무언가를 가르치는 이야기
- 배운것을 모두 뒤집는 이야기

- 가야할 길이 얼마나 요원한가 알려주는 이야기

- 미래로 튕겨 상상력을 총동원케하는 이야기

모든 이야기가 다 참으로 중요하다. 관객을 즐겁게하려는 극이나 참된 진실을 알리려는 연극이나, 위로를 주려는 연극이나 생각을 어지럽히는 연극이나.

지금까지 참 많은 공연을 봤다. 큰집들, 작은집들, 집이 없는것 까지. 나의 연극 여행에서 배운것 하나 있다면 공연을 보러 들어갈때와 다른 사람이 되어 극장을 나선다는 것이다. 이걸 매번 어김이 없다. 그것이 연극이 하는 일이다. 우리 내부에서 무언가를 열어주거나 잊어버렸던 근본적인 무언가를 재확인해준다.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변화 변형되고 재정비된다. 이것이 숨말힐 정도로 놀라운 점이다. 세상을 바꿀수있는 큰힘을 우리 연극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이런 맥락으로 보면, 보다 다양한그룹과 문화권이 참여하는 보다 다양한 연극 생태계를 추구하는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하기 쉬워진다. 왜 우리가 연극계의 다양화에 전력을 다해야한다는 믿음을 버릴수 없는지...이런 믿음은 해쉬태그나 쿼타나 정부나 단체의 지원금을 더 받고자하는 노력을 초월한다. 이런 믿음은 “우리가 사는 도시와 국가를 반영한다”식의 상투적인 답신을 초월한다. 다양한 이야기는 다양한 해결책을 가져준다. 상상력있는 이야기는 얼핏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에 대한 답변을 열어준다. 혁신적인 해결책, 무한한 새로운 안목을 제공하고, 과거보다 훨씬 큰 꿈을 꾸게 한다.

결국 연극인들이 커뮤니티와 시민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바로 이것 - 꼭 필요한 긴밀한 무엇인가를 함께 경험하자고 요청하는 것이다. 인간의 도리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며 또 중요한 일이며, 결코 단순치 않은 일이다. 입장권 판매실적, 평론가의 의견, 상을 탔는가 못탔는가 신경쓰는 등의 함정에 가끔씩 빠지기도 하지만 연극인들은 근본적으로 훨씬 귀중한 것을 제공한다. 그것은 세상의 심장을 고쳐주는 즉 색다른 심장 수술이다.

우리가 무대 앞뒤에서 하는 일은 의사전달이며 중요한 표현이다. 잊었던 기억을 되살려 주기도하고, 때론 잊어야 할것을 잊게도 해준다. 사람들에게 행동을 취하라 종용하기도 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라고도 부추기도 또 무엇이 더 중요한가 조명해 주기도 한다. 자극제도 되고 진정제도 된다. 역사적으로 연극은 시민으로서의 권한행사에 큰 역할을 해왔다. 우리가 힘을 합한다면 지금까지 보다 더욱 큰 역할을 할수 있을것이다. 그러한 일의 귀중함을 알고 의지를 모은다면.

우리가 현재 처한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연극인들이 가진 힘, 또한 연극이 인간사회에 미치는 힘에 대한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연극인들로서 해야 할 일이 완수되기까지는 먼 길이 남아있다는 것도 분명히 안다.

관객수가 열명이건 백명이건 또 천명이건 상관없다. 우린 세상을 바꿀수 있고 또 바꾸어야 한다.